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12월 12일(금)

..(음력 10월 23일)..

Пятница

12 декабря 2025 г.

№ 48 (1216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단신

사할린, 조국 영웅의 날에 희생된 병사들을 기린다

지난 12월 9일, 사할린주에서 러시아 조국 영웅의 날을 맞아 특수군사작전 참전 용사의 가족, 주민들, 군인들, 정부 관계자들이 흐리스토포로브카 특수 군사 작전 참전 용사 추모 단지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헌화를 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으며,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쿠릴 대교구의 니카노르 대주교가 추도 예배를 하였다.

세르게이 바이다코브 제1부지사는 2025년이 러시아에서 조국 수호자의 해로 지정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위대한 조국전쟁의 영웅들부터 현역 군인들에 이르는 세대 간 계승성을 강조했다.

숨쉬 군사-애국 캠프, 러시아 최고로 선정

12월 9일, 조국 영웅의 날에 열린 러시아 청년년사업청 로스파트리오트(러시아 애국가)센터의 전 러시아 애국 포럼에서 '애국가' 국가상을 시상했다. '올해의 최고 애국 프로젝트' 부문에서 사할린주의 '숨쉬' 군사-애국 캠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쿠릴 열도에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탐사, 행군 경로, 재현 활동을 통해 1945년 쿠릴 상륙 작전의 기억을 보존해 왔다고 러시아 청년년사업청이 전했다.

"시대를 초월한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교육자, 자원봉사자, 수색 구조대, 정부 관계자, 기업인, 문화계대표들이 모였다.

국가두마, 시민권 선서 연령14 세로 하향 법안 통과

국가두마는 러시아 여권 취득 시 선서 연령을 현 18세에서 14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14세에 달한 자는 러시아 시민권 취득 시 반드시 선서를 해야 한다. 이전 규범은 18세 이상의 자에게 적용되었다.

이 법안은 또한, 시민권 취득 결정은 해당자가 선서를 거부하거나 1년 내에 선서를 위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간주될 것이라고 규정한다.

연말 장터, 12월 20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

12월 20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전통적인 '새해 장터(박람회)'가 열린다. 주민들은 행사장에서 신선한 농장 식품과 독특한 수제 명절 선물을 구매할 수 있다.

장터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워크잘나야 거리 71 앞마당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육류, 야채와 구역 농장의 쇠고기, 육류 가공품 및 소시지, 어류 제품 및 통조림, 향신료를 더한 염소 우유 치즈, 향긋한 꿀, 꿀, 빵 등을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다.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ГИМНОМ РОССИИ

НОВАЯ РЕДАКЦИЯ

С учетом образования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овых субъектов

▲ 12월 12일은 러시아 연방 헌법의 날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

12월 12일, 러시아 연방 헌법의 날을 맞아 축하를 전합니다!

1993년 12월 12일에 전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의 기본법이 채택된 지 올해로 32주년을 맞았습니다.

헌법은 수백 년에 걸쳐 국가 건설의 경험을 담아낸 문서입니다. 헌법은 러시아의 독립과 시민의 권리 및 자유를 보장하는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기본 법(헌법)에 따라 우리는 함께 사할린과 쿠릴 지역에서 보다 편안한 삶을 위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마을을 정비하고, 학교와 의료 시설을 확충하며, 새로운 생산 시설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의 발전과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향인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께 굳건한 건강, 행복, 그리고 모든 노력에 성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러시아 연방 헌법의 날을 축하합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푸틴 대통령, 국민과의 직통화 19일 열려

'블라디미르 푸틴과 함께하는 한 해의 결산' 프로그램이 12월 19일 금요일에 방영된다. 푸틴 대통령은 생방송으로 기자들과 국민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대통령과의 직통연결은 12월 19일 오후 12시(모스크바 시간)에 열릴 것이라고 크렘린궁 공보실이 밝혔다. 질문 접수는 12월 4일 시작되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질문은 프로그램 웹사이트, 0-40-40번으로 보내는 SMS 및 MMS, 전화(8-800-200-40-40), 특별 모바일 앱(설치 방법은

웹사이트 참조)을 통해 할 수 있다.

텍스트 및 영상 질문은 소셜네트워크 'VK(브콘택테)'와 '오드노클라스니키'의 프로그램 공식 그룹을 통해 보낼 수 있으며, 또한 맥스(Max)의 챗봇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통화'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처리 과정은 '전러시아 인민 전선'(ОНФ)이 관리한다. 이 단체는 2019년부터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 '전러시아 인민 전선'의 공보실에 따르면, 소속 대표들이 전화 접수, 주요 문제 체계화, 민원인과의 연락 및 문제 해

결에 참여하며, 처리 결과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분석한다.

또한 '인민전선'은 지난해 '직통화'의 주요 성과로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음성 및 영상 민원을 텍스트로 전사(필사)하는 데 성공한 점을 꼽았다. AI 활용으로 변환 과정이 크게 빨라졌다. 올해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성능이 더욱 강화되어, 단 7초 만에 민원인의 성별, 연령, 지역 및 민원 내용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I가 민원의 검토 기관을 자동으로 배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새고려신문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구독료는 **885,9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주, '전문가직업기술대회에서 전국 10위권 진입

사할린 지역은 "전문가" 직업 기술 대회 결승전에서 전국 최고 10위권에 진입하며 성공적인 대회 참가를 마쳤다. 사할린주 대학과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준비와 기술을 선보이며 "항공 운송 안전"과 "비행 로봇"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리마렌코 주지사, 모스크바 전략회의서 사할린주 발전 계획 발표

모스크바에서 2036년까지의 극동 연방구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전략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연방 정부의 주제로 진행됐으며, 사할린주 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관할 지역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극동 지역, 그리고 그 중심인 사할린주의 발전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에너지 개발, 새로운 생산 시설 배치, 탄화수소 가공 및 물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역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었습니다. 전략의 일환으로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주택 및 사회문화 시설 건설을 포함한 편의성 높은 사회 환경 조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할린 주민들이 일하고, 살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말했다.

주지사는 보고서에서 사할린주 발전을 위해 마련된 세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그는 과거 섬의 경제가 석유 및 가스 채굴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앞으로는 원자재 가공을 현지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할린주는 '가스프롬'사와 공동으로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적극 검토 중이다. 또한, 대륙붕 개발 사업과 더불어 신규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할린-3' 프로젝트는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할린 국립대학교는 석유 및 가스 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식 학생 캠퍼스가 이미 운영 중이며, 새로운 실험실 구축과 함께 최고 과학자와 전문가들을 대학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사할린 석유가스 산업 단지도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다. 이 단지에는 해상 시추 시설을 유지보수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올해는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의 가스 터빈 수리 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다. 주 정부는 이 단지를 사할린주뿐 아니라 러시아 전역의 해외 산 에너지 설비를 서비스 할 수 있는 핵심 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개발 전략은 첨단 기술 분야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사할린 지역에서는 무인 항공 시스템, 무인 선박 및 수소 기술 등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과학 생산 센터 '사할린의 날개', 극동 무인 항공 회사 '오로라-BAS', 동부 수소 클러스터 등 여러 프로젝트가 이미 가동 중에 있다. 조만간 드론 포트 '푸쉬스틱'을 기반으로 하는 무인 및 자율 시스템 기술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는 지역 내 무인 기술 혁신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북극 항로의 중간 기착지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코르사코브 항만의 현대화 사업도 주목을 받았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단계 공사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준설과 항만 시설 재건축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로써 3년 뒤 사할린주는 현대적 사양의 심해항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정부는 지난 7년간 사회 분야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가족 가치 강화와 인구 통계 개선을 목표로 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미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역 내 임산부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도 확인되고 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러시아 연방 총리와 정부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는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서 추진되는 모든 정책과 노력이 주민 복지 향상과 함께 극동 지역을 러시아인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연례 <장인들의 박람회> 한민족 문화체험 축제 개최

지난 5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연례 <장인들의 박람회> 한민족 문화체험 행사가 열렸다. 사할린 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학장 임 엘비라)과 사할린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가 공동 개최한 이번 축제에는 <섬의 경제> 외국어경연대회 수상자를 비롯해 한국어·한국학 전공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이 박람회는 사할린주 정부가 지원하는 '세대의 연결, 전통의 이어줌' 사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외국어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을 보인 사할린 각지의 9-10학년 학생들과 사할린국립대 학생들은 감사장과 기념품을 받은 뒤 한민족 공예 나전칠기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나무 젓가락에 독창적인 문양을 새기며 자신만의 표현을 시도했다.

이번 장인들의 박람회는 미래의 언어학자는 물론, 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언어적 감각을 키우며 동양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

(드미트리 포구다예브)
(사진: 사할린국립대 제공)



이모저모 사할린 학생들, '아브로라' 항공사 업무 체험

지난 12월 6일(토), 직업체험 프로젝트 '비즈니스 토요일'의 일환으로 사할린 지역 학생들이 항공사 '아브로라'의 업무를 살펴보았다. 직원들은 학생들에게 각자의 업무 분야를 소개하고, 현재 항공 산업이 제공하는 진로와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오스트로와(섬)' 전문 개발 센터에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미래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8~11학년 학생들은 한 달에 두 번 현장을 방문하여 사할린 지역에서 수요가 있는 다양한 직업들을 접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섬 미술관의 전시장인 아트 레지던스 '마야크'에서 열렸으며, 항공사 '아브로라' 직원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업무를 소개하고, '아브로라' 항공편의 일반 항공권을 모방한 탑승권을 나눠주며 학생들을 일상 업무 환경을 체험하도록 했다.

'아브로라'는 현재 지역 간 항공편과 국제선을 포함해 500개 이상의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항공기 정비 엔지니어, 승무원, 여객 운송 담당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날은 승무원을 비롯해 파일럿, 항공기 정비 엔지니어, 여객 운송 담당자들이 참석해 각자의 업무를 소개했다. 또한 학생들은 관련 퀴즈에 참여하여 브랜드 기념품을 받기도 했다.

'비즈니스 토요일' 프로젝트는 2021년 11월부터 시행돼 왔다. 2025년부터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의한 국가 프로젝트 '청소년과 어린이'의 일환으로, '오스트로와' 전문 개발 센터가 고등학생 대상 인터랙티브 직업 체험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работой в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В субботу, 6 декабря,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ориентации «Деловые субботы»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работ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Сотрудники рассказали им о своей сфере труда и перспективах, которые предлагает на сегодня

нашний день авиация.

Сам проект, запущенный Центр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а», призван помочь школьникам в поиске будущей карьеры. Ученики 8–11 классов выезжают дважды в месяц и знакомятся с различными профессиями, востребованным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 очередная встреча прошла в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остров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куда приехали сотрудники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Они рассказали школьникам о своей работе и погрузили в атмосферу повседневного труда, запустив учеников по посадочным талонам, которые имитировали классические авиабилеты на рейсах «Авроры».

«Аврор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оединяет больше 500 маршрутов, включая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е и зарубежные рейсы.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авиакомпания всегда набирает новых сотрудников, нуждаясь в инженерах по техобслуживанию самолетов, бортовых проводниках и агентах пассажирских перевозок.

Перед учениками в этот день выступили не только бортпроводники. Также о своей работе им рассказали пилоты, инженеры по техобслуживанию самолетов и агенты пассажирских перевозок. Также школьник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тематическом квизе,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получили брендированные призы.

Проект «Деловые субботы» реализуют с ноября 2021 года. С 2025 года Центр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а» начал проводить интерактивные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ые занятия для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Ф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사할린 학생들, 플라스틱 수거 112kg수거해 재활용 업체로 전달

사할린에서 생태와 지역 환경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여러 자치체 학교 학생들을 함께 한 '에코미션: 재활용' 캠페인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재활용 판매 수익은 사회 공헌 활동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폐기물 처리 관리' 회사의 홍보실이 전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12개 학교에 1차 수거용 및 이미 분류된 플라스틱 전용 수거함이 설치되었으며, 교사들은 깨끗하고 적합한 제품만 재활용 처리장으로 보내지도록 철저히 관리했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의 참여를 형식적 수준에 그치지 않게 했다: 학생들은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분류 후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가며, 자신의 노력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접 이해했다.

학생들은 총 112kg이 넘는 플라스틱을 수거했으며, 이는 재활용 처리장으로 보내져 폴리머-모래 보드블록(마당과 공공 장소 정비에 사용되는 튼튼하고 수요가 많은 자재) 생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 리체이는 생태가 학교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우리 리체이 학생들에게 생태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폐지, 플라스틱, 배터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가치와 자신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결과를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교육 기관의 홍보 전문가 나탈리아 아브라멘코가 전했다.

분리수거는 생태적 일상의 기초로 간주된다. 학생들은 사용 후 포장재가 어떻게 될지 미리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캠페인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친환경은 아이들에게 교과서의 추상적인 주제가 아닌 개인적 경험의 일부가 된다.

캠페인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시상식은 오는 12월 15일 '유니슨' 리소스 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참가자를 표창하는 한편, 내년 학생 생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도 논의할 계획이다.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собрали и отправили 112 кг пластика на переработку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вели итоги акции "ЭкоМиссия: Переработка", объединившей школьников сразу нескольк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вокруг темы экологии и лич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природу региона. Средства от его переработки направят на поддержку социальных инициатив,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О "Управление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В рамках акции в 12 школах установили отдельные контейнеры для первичного сбора и уже отсортированного пластика, а педагоги строго следили за тем, чтобы в переработку уходило только чистое и подходящее вторсырье. Такой формат позволил сделать участие ребят осознанным, а не формальным: дети учились отличать перерабатываемые материалы, узнавали, что происходит с отходами после сортировки, и видели, как их усилия превращаются в конкретный результат.

(3면에 계속)

2026년도 재외동포청 예산 1,127억원 확정

2025년 예산 대비 57억(+5.3%) 증액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예산이 총 1,12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 재외동포청 예산 추이 : (‘24) 1,067 → (‘25) 1,071 → (‘26) 1,127 (단위: 억원)

이는 2025년도 본예산(1,071억원) 대비 56억원(+5.3%) 증가한 규모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25억원), ‘대륙별 한인회장대회’(+3억원), ‘지역별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3억원) 등 8개 사업이 추가로 반영되어, 정부안 1,092억원 대비 총 35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증액은 재외동포청이 동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동포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예산을 국정과제 이행에 중점을 두고, ▲귀환동포 지원 강화 ▲세계한인 네트워크 재편 ▲차세대 정체성 교육 강화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등 핵심 사업을 증액·편성했다.

1. 귀환동포 지원 강화: ‘정착 기반 확충의 원년’ (국내정착 지원)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의 협업 모델을 구축하여, 약 100만의 귀환동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 정비
 - ✓ 지역별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25) 6.9억원 → (‘26) 9.6억원
 - ✓ 국내정착 관련 민간단체 지원: (‘25) 0.5억원 → (‘26) 1.5억원 (동포청년인재 육성)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동포청년인재를 대상으로 패키지 지원 사업 본격화 동포청년을 국내로 유치하여 교육, 취업, 정주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화형 동포 인재로 성장시키고 국가 경쟁력 제고와 인구 활력 회복에 기여

✓ 동포청년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 (‘26) 30.9억원 (신규)

2. 세계한인 네트워크 재편 : ‘하나로 연결되는 글로벌 공동체’

한인사회 조직화) 기존 세계한인회장대회 한계를 보완하여, 차세대, 경제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포를 포괄하는 신규 통합행사로서 ‘세계한인대회’를 신설하여 글로벌 한인 협력망을 전략적으로 재구성

2026년에는 ‘대륙별 한인회장 대회’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어 해외 지역별 한인사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적극 지원

✓ 대륙별 한인회장대회 : (‘26) 3억원 (신규) (순회영사 활동 지원 강화) 재외공관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관 방문이 어려운 재외동포 대상으로 공관 영사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영사서비스 제공 확대

✓ 순회영사 활동 지원: (‘25) 7.7억원 → (‘26) 8.2억원

3. 차세대 동포 한인 정체성 교육 강화: ‘언어·문화 기반의 미래세대 육성’

(한글학교 지원 강화) 차세대 동포들의 한국어 및 한인 정체성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글학교의 교육 기반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현재 한글학교 운영비(교사 수당, 학습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한글학교 역량강화: (‘25) 186억원 → (‘26) 195억원

4.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책임·기억·예우의 정책화’ (사할린동포 지원) 대한민국 국적에 걸맞게 역사적으로 희

생·헌신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들의 국내 영주귀국과 정착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할린동포 2·3세 모국 방문 지속 추진

* 「사할린동포법」 개정(‘24.1월)에 따른 동반가족 범위 확대 (직계비속 1명 → 모든 자녀)

그 동안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일부 예산을 2026년부터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사업 추진

✓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26) 78억원 (76.5억 재외동포청 이관, 1.5억 증액)

(역사 보존) 한-우즈베키스탄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정주 90주년인 ‘27년 내 개관을 목표로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공사비 7감리비 등): (‘25) 3.5억원 → (‘26) 25.3억원

5. 디지털 행정기반 강화: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동포청 내에 보안관제센터 (신규, 27억 원)를 신설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 마련

✓ 보안관제센터 구축: (‘26) 27억원(신규)

재외동포청은 2026년 확정된 예산을 투명하고 내실있게 집행함으로써 동포사회의 핵심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더 신뢰받는”동포 정책을 구현하고, 동포사회가 처한 현안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답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Всего школьники собрали более 112 кг пластика, который направят на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е предприятия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полимер-песчаной тротуарной плитки — прочного и востребованного материала дл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дворов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В лицее № 2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экология стала частью шко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Для ребят нашего лицея экология — это привычка. Мы не просто собираем макулатуру, пластик, батарейки, а учим детей понимать ценность ресурсов и последствия своих действий для планеты", — рассказала специалист по связям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Наталья Авраменко.

Раздельный сбор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основа экологичной повседневности: школьники учатся заранее задумываться, что будет с упаковкой посл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 выбирают более рациональные решения. Практическое участие в таких акциях делает экологию для детей не абстрактной темой из учебника, а частью личного опыта.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самых активных школ и участников акции пройдет 15 декабря в ресурсном центре "Унисон". Здесь подведут итоги, отметят лучших и обсудят, как развивать экологическое волонтерство школьников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추위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함 설치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앙 우체국에 추위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는 우편함이 설치됐다. 희망자는 누구나 '겨울 마법사'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으며, 새해 우편 주소는 안내 포스터에 기재돼 있다.

추위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는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된다. 직원들은 매일 편지들을 분류하여 새해 마법사의 거처로 보낸다. 러시아 우체국 홍보실에 따르면, 섬 주민들은 하루에 150통에서 500통의 편지를 보낸다.

러시아 우체국은 추위 할아버지가 새해 전에 편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의 변함없는 주소인 '162390, 월로그다주, 웰리키 우스투그, 추위 할아버지의 집'으로 미리 발송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Почтовый ящик для писем Деду Морозу появи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центральном почтовом отделен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становили почтовый ящик для писем Деду Морозу.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может отправить своё письмо зимнему волшебнику — адрес для новогодней почты размещён на красочном плакате.

Письма Деду Морозу принимают в любом почтовом отделении. Каждый день сотрудники сортируют их и отправляют в резиденцию новогоднего волшебника. За сутки островитяне отправляют от 150 до 500 таких писе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ператора связи.

Чтобы Дед Мороз прочитал послание до Нового года, Почта России рекомендует отправить письмо заранее на его неизменный адрес: 162390, Дом Деда Мороза, Великий Устюг, Вологодская область.

사할린 주민의 삶과 어업을 다룬 전시, 향토 박물관서 개막

12월 12일 (금) 유즈노사할린스크 향토 박물관 건물에서 '어식 동물의 섬들'이라는 주제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전시회는 사할린과 쿠릴 열도 주민들의 삶에서 어업 문화의 역사적 특징을 보여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홍보실이 전했다.

이 프로젝트는 방문객들에게 원주민과 러시아 이주민의 유산을 소개할 것이다. 전시회 이름은 '물고기를 먹는 자들'로 번역되는 '이흐티오파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전시에는 도구, 어구, 의복, 신발 등 박물관 소장품을 비롯해 고고학 발굴 유물과 민족지학자들의 수집품이 출품된다. 아울러 지역 미술가들의 장식 및 응용 미술 작품도 함께 전시돼 섬의 문화적 특징을 보여줄 예정이다.

Выставку о роли рыболовства в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откроют в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В пятницу, 12 декабря, в здании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ится открытие тематической выставки под названием «Острова ихтиофагов». Экспозиция расскажет об исторических особенностях рыболовной культуры в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узея.

Проект познакомит гостей с наследием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и рус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Название выставки происходит от слова «ихтиофаги», которое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питающиеся рыбой». В экспозиции представят предметы из собрания музея: находки археологов, ар-

тефакты древней эпохи, коллекции этнографов, в том числе орудия, снасти, одежда, обувь.

Кроме того, культурный колорит острова представят предметы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местных художников.

유즈노사할린스크 연금자, 사기 범죄에 500만 루블리 피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연금 수령자가 사기범죄로 인해 약 500만 루블리를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러시아 내 무부 사할린주 관리국 공보실이 밝혔다.

2주 전, 범죄자들은 63세 사할린 여성에게 직장 동료의 계정을 사칭한 메시지와 함께 링크를 보냈고, 그는 의심없이 링크를 클릭했다. 얼마 후, 해당 여성은 자신의 '고스우슬루기(국가 서비스 포털)' 계정이 해킹돼 모든 서류가 다운로드됐다는 알림을 받았다.

이어 '러시아 연방 금융 모니터링 서비스'와 '연방 보안국' 직원을 사칭한 인물들이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자동입출기(ATM)를 통해 4,899,000 루블리의 전 재산을 지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속였다. 이 사건은 러시아 연방 형법 제159조 제4항(특대 규모 사기)에 따라 형사 절차가 개시됐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Мошенники выманили почти 5 млн рублей у пенсионерк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енсионерк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тала жертвой мошенников и потеряла почти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одробности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ве недели назад злоумышленники прислали 63-летней сахалинке ссылку в мессенджере от аккаунта ее коллеги. Она ничего не заподозрила и перешла по ней.

Через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островитянке пришло сообщение, что кто-то взломал ее аккаунт на Госуслугах и скачал оттуда все документы.

Вскоре женщине позвонили неизвестные под видом сотрудников «Росфинмониторинга» и «ФСБ». Они убедили ее перевести все накопления в размере 4 899 000 рублей при помощи банкомата на указанные ими счета.

Заведено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по части 4 статьи 159 УК РФ — мошенничество в особо крупном размере. Идет следствие.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сиянии перламутр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ла Ярмарка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5 декабря в стенах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ось ключевое событие, завершившее цикл мероприятий в рамках социального гранта «И поколений связь, и нить традиций», — ежегодная «Ярмарка мастеров»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ореи на Сахалине.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или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и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рмарка стала площадкой для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ёров конкурса по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Островной рубеж», прошедшего в ноябре.

Помимо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ёров конкурса ярмарка собрала на одной площадке самых активных студентов-кореевцев, а также первокурсников СахГУ, которые только начинают знакомиться с увлекательным миром Востока. В этот раз темой ярмарки стало «Искусство перламутра наджон чхильги». Участники своими руками создавали узоры на деревянных палочках для еды «чоткарак». Важной особенностью творческого процесса стала полная свобода самовыражения: каждый наносил свой уникальный рисунок, превращая обычный предмет в изящный и неповторимый перламутровый сувенир.

Ярмарка мастеров оказалась значимым событием не только для будущих лингвистов, но и для всех, кто интересуется культурой других стран, развивает языковое чутьё и стремится понимать глубинные культурные коды Востока.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СахГУ)

Блестящий результат сахалинских тхэквондистов

6-7 декабря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ся грандиозный спортивный праздник — XXV Юбилейн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урнир по тхэквондо МФТ «Московский вызов».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3000 сильнейших спортсменов из 54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ключая ДНР, ЛНР и Крым, а также атлеты из 24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Китая, Абхазии, Армении, Казахстана, Киргизии, Беларуси и других.



Че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толь престиж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защищала сборная команд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тренеров-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Виктора Романова и Вячеслава Кима. Сахалинцы показали выдающийся результат, завоевав медали в условиях невероятной конкуренции.

По итогам турнира наши спортсмены завоевали следующие награды:

Ким Вячеслав — 1 место в силовом разбивании (ветераны)

Голдина Ульяна — 1 место в дисциплине «массоги» (девушки 54+ кг)

Чан Евгений — 1 место в дисциплине «туль» (10 гып)

Шпак Илья — 3 место в дисциплине «туль» (8 гып) и 3 место в «массоги» (юниоры до 56 кг)

Танаев Алманбет — 3 место в дисциплине «туль» (8 гып)

«Это огромный успех и для наших спортсменов, и для вс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тхэквондо. Они — настоящие герои. Мы бесконечно гордимся их волей к победе, стойкостью и мастерством, которые проявил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уровне. От всей души поздравляем ребят и их наставников! Желаем не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на достигнутом и покорять новые высоты!», — сообщил гранд-мастер тхэквондо Ан Сухаги.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восемнадцатое письмо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забытый голос предков»

Редколлегия

Ищу своих братьев на родине.

С почтительным приветствием обращаюсь к Вам, 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который с любовью и неустанным трудом день и ночь трудится на благо других. Я один из задержанных жителей Карафутто (Сахалина).

Желаю, чтобы Вы были здоровы и крепки, чтобы дело, которое Вы продвигаете, процветало, а в Вашем доме царили здоровье и счастье. От всего сердца молюсь об этом.

Мы, корейцы, тяжело больные от тоски по родному дому, всегда слушаем радиопередачи. Даже в этот момент, в надежде на какую-нибудь радостную весть, в мучительном ожидании, ощущая каждый миг как вечность, мы, собрав свои силы, ждём того дня, когда вернёмся на родину. Однако все хлопоты нашей страны, включа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и наши страстные желания разбились, как мыльный пузырь.

Я до сих пор являюсь обладателем паспорта негражданина, поэтому остаюсь пациентом, больным тоской по родине. В так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время идёт, эпоха меняется, и мои двое сыновей получили советские паспорта: один женился на русской девушке из Москвы, другой — здесь на «ольмакуча» (1).

Но я верю. Я уверен, что если все продвигаемые проекты будут завершены, то и для нас засияет заря, и мы вернёмся на родину, и будет день радост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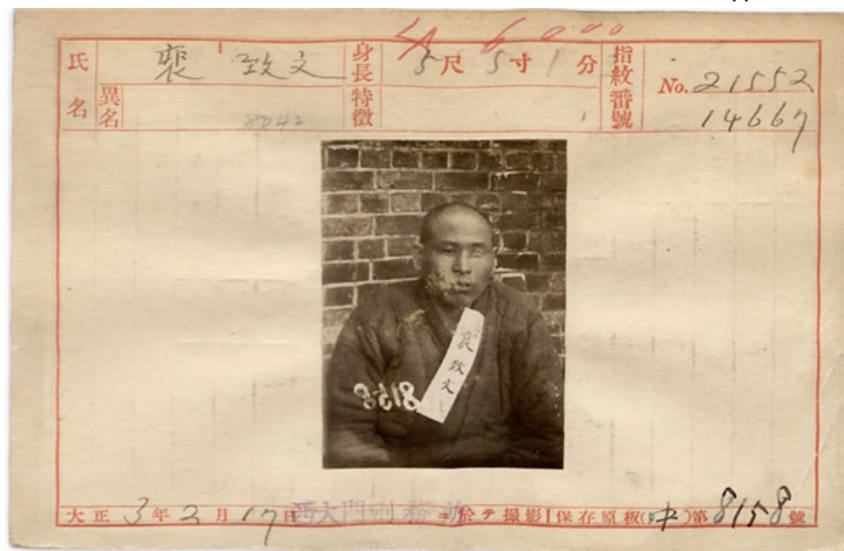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едутся переговоры меж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Севера и Юга, и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роявит максимальное рвение и искренность. Если это станет поводом для того, чтобы засияла заря ми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Родины, о котором мечтают 50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то какую великую славу обретёт наш народ!

Место мое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2) — город Мокпо, провинция Чолла-Намдо, квартал Тэсон-дон, дом 101. В сентябре 1940 года моя жена по моему приглашению приехала в Одомари (3) без семьи, а в 1943 году мы переехали в другой город.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у меня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вернуться, но в то время у меня была почти 80-летняя бабушка жены, что создало много препятствий, и вот я живу жизнью задержанного.

Цель моего письма — узнать, живы ли мои братья и родственники на родине. Конечно, Вы и сами хорошо знаете, что в 1948-1949 годах, когда был разрешён обмен письмами, я получил ответ от старшего брата в Мокпо и вести от шурина в Кимхэ, провинция Кёнсан-Намдо. Список моих братьев 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таков:

Старший брат Чо Чжон Хван (조정환) в Мокпо (от мамы) — 76 лет (адрес: город Мокпо, Яндон, номер 72), следующая — старшая сестра Чхве Чин Чин (최진진) — 72 года (район Муан, Ильно-мён, Самори), следующая — четвёртая старшая сестра Чхве Чан Бон (최장봉) — 64 года (Мокпо, Яндон), третья старшая сестра Чхве Э Сук (최애숙) — 67 лет (провинция Южная Чолла, Чиндо), её мужа (зять) зовут Пак Бон Чун (박본준), вторая старшая сестра Чхве Ён Сук (최영숙) 69 лет из города Кунсана провинции



На фото: лицевая сторона карточки лица, подлежащего наблюдению со стороны Японии. Пэ Чи Мун в возрасте 25 лет в тюрьме Содэму. 1914 г.

Южная Чолла. В Мокпо много родственников, моего тестя зовут Пэ Чи Мун (배치문) (4). Он также был патриотом и активистом антияпонской борьбы и десятки раз подвергался тюремному заключению со стороны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В последний год своей жизни он был заключён в тюрьму Мокпо и умер там.

Тёщу звали Ким Чин Сун (김진순), в то время она жила в Сеуле (адрес неизвестен). Так как моя жена была их единственной дочерью, у нее не осталось семьи.

Затем в Кимхэ, провинция Кёнсан-Намдо, волость Ибук-мён, деревня Юрим-джон, жили два дяди жены: шурина Пэ Чон Сик (배종식), 60 лет и 65 лет, и по их линии ещё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человек. От этой семьи тоже были новости после войны.

Я пишу это письмо в надежде, что благодаря Вашим трудам, Вы передадите вести вышеупомянутым моим братьям и родственникам.

Если ответственный за время для корейцев Карафутто на третьем по времени канале Центральной радиостанции Сеула свяжется с радиостанцией города Мокпо и найдёт их, это будет неоценимая заслуга, и я проявлю всю свою искренность и выражу благодарность. Скажите моим братьям и родственникам на родине, что я, живя на чужбине за десять тысяч ли (5), днём и ночью хочу знать, как у них дела.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сменяются времена года, особенно когда возвращается осень, моя тоска по родине становится особенно тяжкой. Прекрасные пейзажи, где краснеют исторически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и древние памятники, золотые волны, колыхающиеся на полях, звуки, доносящиеся издалека или из близких мест, где гонят птиц с созревающих злаков, — всё это до сих пор остаётся в моих ушах, и воспоминания оживают с новой силой.

Вы, наверное, хорошо знаете эту землю Карафутто. Когда подумаешь, что скоро на этой северной земле будут бушевать метели, становится жутко. Неужели это судьба малых народов? Однако сейчас наша Родина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звивается и, говорят, встанет в один ряд с развитыми странами, и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я слышу такие новости по радио, я чувствую глубокое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Моя Родина! Моя Родина, где собрались мои предки! Процветай! Иди вперёд, сияя прохладным светом для потомков на десять тысяч поколений! И не забывай сирот Карафутто, прими нас в свои объятия.

Желаю, чтобы процветала Ваша компания и дело, которое Вы продвигаете ради нации, было завершено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а Ваши достижения и заслуги навеки остались в истории нашего народа.

5 сентября 1972 года
Проживающий в Карафутто
Чхве Нам Сок (최남석)

Комментарии:

(1) Олмакуча — не удалось расшифровать слово, возможно это сильно изменённое название одного из советских народов. Возможно — армяне.

(2) Автор письма применяет корейское слово бончжок 본적 (本籍). Бончжок означает «мест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или «родовую регистрацию» и относится к системе семейного реестра (ходжу, 호주), которая фиксировала происхождение семьи по мужской линии. Исторически бончжок указывал на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место, откуда родом был родоначальник семьи, и передавался по наследству от отца к детям, независимо от их фактического места рождения или жительства. Эта система, тесно связанная с конфуцианскими патриархальными традициями, играла важную роль в социальной и правовой идентификации. Однако в 2008 году она была упразднена и заменена на систему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современном разговорном языке термин иногда ошибочно используют для обозначения фактического места рождения, однако это не так — скорее это можно перевести как «место рождения семьи», то место откуда она была родом.

(3) Одомари — японский крупный порт и город на Карафутто. В 1946 г. был переименован в город Корсак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4) Пэ Чи Мун (裴致文, 1890—1942), также известный под именем Хонгиль (洪吉), родился 17 февраля 1890 года в городе Мокпо, провинция Южная Чолла. Получив образование в Мокпоской коммерческой школе, он впоследствии стал одним из видных деятеле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и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в Корее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Юлия Дин, к.и.н.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коростные поезда KTX и SRT будут объединены в общую сеть

8 декабря министерство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представило план интеграции скоростных поездов KTX и SRT в единую сеть. Цель интеграции,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предвыборных обещаний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Ли Чжэ Мёна, в полной мере удовлетворять спрос на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е перевозки и повыс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движения. Согласно план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зрешит поездам KTX и SRT курсировать по линиям друг друга и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на станциях, где спрос на билеты превышает предложение. Билеты на поезда будут едиными, а при пересадке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лены скидки. Завершить необходимые юридические процедуры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интеграции планируется к концу 2026 год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возвращается в Чхонвадэ

8 декабр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приступила к подготовке к переезду из комплекса зданий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в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Ёнсан-гу в исторический президентский комплекс Чхонвадэ в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Чонно-гу. Первыми в Чхонвадэ вернутся секретари президента. Пресс-служба и други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приступят к переезду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ремонта в залах заседаний и других служебных помещениях в период с 20 по 23 декабря. Накануне глава президент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ан Хун Сик сообщил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что аппарат президента переедет в Чхонвадэ до Рождества. Резиденция президента будет перенесена из сеульского района Ханнам-дон в Чхонвадэ в начале января. После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в 2022 году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перенёс президентскую администрацию из Чхонвадэ в комплекс зданий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в сеульск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Ёнсан-гу. Нынешний президент Ли Чжэ Мён, вступив в должность в июне этого года, пообещал вернуть администрацию обратно в Чхонвадэ.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естных судов обсуждают юридическую реформу

8 декабр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естных судов со всей страны собрались в Институте судеб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в Коя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Они обсуждали юридическую реформу, предложенную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ей Тобуро. Накануне судьи выразили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по поводу двух законопроектов, продвигаемых правящей партией. Они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создание специального трибунала для рассмотрения дел о попытке госпереворота и введение нового вида преступления «искажение закона». Повестка заседания включала также обсуждени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участия судей в работе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судебной системы 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системы рекомендаций для кандидатов на должность члена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Сервер Соуранг взломан при помощи ключа электронной подписи

Масштабная атака с целью взлома данных гиганта электронной коммерции Соуранг, затронувшая данные около 35 миллионов клиентов, продолжалась с июня по ноябрь и была связана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ключа электронной подписи компан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замминистра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Рю Чжэ Мён, выступая 2 декабр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Он отметил, что об утечке данных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лишь тогда, когда бывший сотрудник Соуранг отправил в компанию электронное письмо, в котором сообщил, что украл более 30 миллионов единиц ли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Соуранг Пак Тэ Чжун заявил, что подорываемый работал в команде разработчиков системы верификации компани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одробности не предоставлены, поскольку полицейск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родолжается. Ранее в этом году утечки данных клиент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в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компаниях SK Telecom и KT, а также в компании-операторе кредитных карт Lotte Card.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музей Кореи посетили более 100 млн человек

3 декабря исполнилось 80 лет с момента открыт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Кореи. За это время его посетили 106.693.080 человек. За первый месяц работы музея, открывшегося 3 декабря 1945 года, в его главном здании и четырёх филиалах побывали 4.500 человек. За весь 1946 год, когда музей начал вести регулярный учёт посетителей, их число составило 124.828 человек. По прогнозам, за весь нынешний год музей посетят 5.814.265 человек, что примерно в 46 раз больше, чем в 1946 году. В первый год работ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музей Кореи, который тогда располагался во дворце Кёнбоккун, занимал площадь 6.916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лощадь музея составляет 146.754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РКИ

В Москве прошел 11-й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гуманитарный форум "Мост дружбы"

В Москве прошел 11-й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гуманитарный форум "Мост дружбы", в котором эксперты,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журналисты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обсудили роль медиа и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в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культур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ихаил Швыдкой, указав на больш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корейского контента и товаров, отметил особо важную роль корейского кинематографа для России.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делал образное сравнение, с юмором рассказав, что российские женщины очень сильно доверяют корейской косметике, так как доверяют ей свое лицо.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уровень доверия русской женщины корейской косметике стал бы символом и наших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а доверие такое же было бы во всех сферах и с обеих сторон", - сказал он.

Недавно прибывший в Россию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Ли Сок Пэ вспомнил эпизод из своей жизни, когда в Москве маленькая дочь его друзей взахлеб рассказывала об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х корейских мультфильмах", а затем уже в Сеуле дочь корейских знакомых была без ума от российского мультика "Маша и медведь".

"Это заставило меня понять, что наши отношения уже достаточно глубокие и их не разрушить", - заявил корейский посол, пообещав приложить максимум усилий для актив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ших стран.

Посо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К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сообщил,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определенные сложности текущего момента, сохраняются и продолжают связи в культурно-гуманитарной сфере. "Присутствуют коллективы и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ые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носятся к РФ, в Корею приезжают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коллективы, демонстрируют фильмы, проходят театральные постановки", - рассказал дипломат. Одновременно он отметил, что "мягкая сила РК пользуется влиянием во всем мире, и Россия здесь не является исключением".

Российский посол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охранение контактов отражает взаимную симпатию наших народов. Он также вспомнил китайское выражение "наверху горячо, внизу прохладно", которым подчас характеризуют отношения РФ и Китая, отмечая, что дружба и связи в политике серьезно опережают контакты в экономике.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ситуация обратная - "наверху прохладно, а внизу весьма тепло", - сказал он, отметив хорош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россиянами и корейцами на личном уровне и контакты в культурно-гуманитарной сфере.

Один из самых известных русистов Южной Кореи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Ким Хён Тхэк отметил,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некоторый первоначальный спад в отношениях в 2022 году, в 2023-2025 годах началось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уровня и частоты контактов в гуманитарной сфере, в Южной Корее стали чаще проводиться вы-

люще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едомство выразило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дипломата.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родился в Одессе в 1955 году. В 1978-м закончил Моск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тавки, показы фильмов, театральные постановки. "Россия, литература, культура вашей страны была и до сих пор остается объектом большого интереса образованной прослойки нашего общества, и это продолжится", - отметил профессор, призвав найти новые формы двусторонних обменов, чтобы лучше узнать и понять друг друга.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из Института Китая и современной Азии Мария Осетрова признала, что присоединение РК к антироссийским санкциям отрицательно сказалось не только на политических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ях, но и на культурной сфере, тем не мене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продолжилось в том числе потому, что россияне очень полюбили корейскую волну "халлю". "Халлю относительно поздно пришла в Россию, но российская аудитория очень быстро и всем сердцем полюбила корейский контент".

Руководитель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СМИ и гражданское общество" в рамках "Диалога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Лим Гван Ги подчеркнул нехватку находящихся в странах друг друга постоянных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в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МИ. Он указал, что если в 1991-1997 годах в России работали 13 постоянных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МИ, то сейчас остался только один. Для сравнения он привел статистику количества постоян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Кореи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в США работают 67 репортеров из РК, в Китае - 35, в Японии - 20, а в России только один.

Схожая тенденция по сокращению численности журналистов из РФ в РК также вызвала у него сожаление. Эксперт признал, что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во многом ориентируются на повестку и нарратив, которые распространяют издания Запада, не пытаясь при этом выработать свой подход и точку зрения.

Обозреватель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ы" Олег Кирьянов, который долгое время проработал собственным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м издания в Корее, поделился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о поводу освещения событий в РФ в корейских изданиях. Он отметил, что сейчас доминирует проблематика, связанная с Украиной, конфликтом РФ со странами Запада, а также тематика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РФ и КНДР, что крайне интересует Сеул. Было высказано сожаление по поводу отрывочности освещения событий РФ из других сфер. В отношении обратной ситуации - освеще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новостей в СМИ РФ - было высказано мнение, что отрывочных эпизодических новостей хватает, но часто недостает аналитических пояснений, рассказа о контексте, на фоне которого происходят те или иные события.

Нынешний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гуманитарный форум "Мост дружбы" проводится ежегодно и стал 11-м по счету. Он собирает не только экспертов,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занимающихся проблематикой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России и Кореи, но и обычных людей, которым интересна тема гуманитарных связей и кто является поклонником корейского контент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Умер посол России в КНДР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Посол России в КНДР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скончался на 71-м году жизн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МИД РФ.

В сообщении говорится, что дипломат умер 6 декабря.

В МИД отметили, что Мацегора внес существенный вклад в становление и углубление всеобъем-

люще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едомство выразило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дипломата.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родился в Одессе в 1955 году. В 1978-м закончил Моск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ститу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МГИМО).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института работал в торгпредстве СССР в КНДР.

Н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работе - с 1999 года. Пост чрезвычайного и полномочного посл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КНДР занимал с декабря 2014 года.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изнал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успехи КНДР в условиях санкций

В Сеуле прошел научно-экспертный форум "10 лет санкций проти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экономика КНДР",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обсуждалась текущая ситуация в народном хозяйстве Страны чучхе. Основываясь на объективных данных, эксперты Юга признали, что наблюдается улучшение ситуации в экономике КНДР.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КИЕР) Ким Да Уль представила доклад, основывающийся на анализе материалов спутниковой съемки. По его данным, динамика последних трех лет демонстрирует неожиданное оживле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активности в КНДР - несмотря на продолжающиеся уже десятый год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анкции.

По словам исследовательницы, индекс освещенност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ночное время в текущем 2025 году (рассматривался период с первого по третий кварталы) примерно в семь раз выше, чем в 2021 году. Особенно заметный рост фиксировался именно в 2025-м. Специалисты объясняют это не только улучшением эффективности выработки и передачи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но и расширением ее потребления -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ля освещения.

На спутниковых снимках фиксируется и рост промышлен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Зафиксировано устойчивое увеличение таких индикаторов, как тепловое излучение, выбросы диоксида азота и общая активность. При этом во втором квартале 2023 года начался подъем, который в текущем году приобрел характер резкого скачка. По оценке Ким Да Уль, в 2025 году промышленный сектор КНДР, вероятно, покажет более высокие темпы роста,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хожие выводы представили и специалисты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Кореи (KDI) - Ким Гю Чхоль и Нам Чжин Ук. По их словам, наиболее выраженный рост активности отмечается в районах, где сосредоточены предприятия тяжелой, химической и вое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путниками зафиксировано снижение рыночной активности, на что указывает сокращение товарного движения и снижение числа активных торговых точек. Причинами называют рост цен, усил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нтроля над распределением зерна и валютным обращение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ая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станет ближе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м цент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вершают модернизацию передовых операционных. В них будет возможно проводить самые сложные оперативные вмешательства, которые ранее были доступны только на материке. Введение операционных поможет также разгрузить очередь из пациентов, ожидающих хирургического вмешательства в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е имени Анкудинова,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е и онкодиспансере.

— Пациенты говорят, что медицина на островах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тала доступнее. Конечно, не все идеально, и работа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родолжается. Теперь стоит задача — улучшить качество нашей медицины. Стремимся к тому, чтобы у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йти любую операцию, не покидая родного региона. Хирурги из лучших медицинских центров страны сами будут приезжать и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нашим пациентам на базе операционных КДЦ, оснащенных по последнему слову техники. Сегодня необходимо донести эту информацию до пациентов и сформировать лист ожидания, — отметил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коло 1400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ежегодно выезжают на лечение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Чаще всего людям требуется помощь по трем профилям: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ая хирургия, травматология и ортопедия, оториноларингология.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ручил сформировать лист ожидания пациентов, которые готовятся к операциям, намеченным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Им предложат пройти лечени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Людям не придется выезжать в Москву,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и другие города, тратить средства на проживание и питание.

При наличии направления оставить заявку в лист ожидания можно будет по номеру 1-300. Если пациент имеет сформированный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на плановое оперативное вмешательство, с ним свяжутся и назначат дату госпитализации. Кроме того, в лист ожидания сможет записать и лечащий врач.

Лечением сахалинских пациентов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специалисты из ведущих российских клиник.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партнер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танет Тихоокеанский медици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В течение года команды профессоров и врачей будут прилетать в регион, чтобы проводить сложные операции и обучать островных коллег. Это позволит качественно поднять уровень хирургической помощи в регионе.

Хирургические мощности — две большие и одна малая операционные — будут запущены в КДЦ уже в декабре.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после вмешательств пациенты будут в комфортных палатах нового круглосуточного стационара, который обустроили на третьем этаже учреждения.

— Подсчитали потребность — 3 тысячам пациентов в год требуются сложные хирургические операции. С вводом новых операционных мощности и потребности будут сбалансированы. Мы разбили по месяцам и направлениям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торых нужно пригласить. Так, зимой ожидаем хирургов из Москвы и травматологов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шук.

Отметим, в новых операционных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е хирургические манипуляции, которые прежд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е были доступны. Среди них — роботизированные травматологические вмешательства, эндопротезирование суставов пальцев кисти, бариатрические операции для пациентов с ожирением, имплантация колец роговицы.

Развити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ов для губернатора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на Сахалине запустили центр ядерной медицины, открыли новые корпуса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и паллиативного центров. Продолж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едицинских объектов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нац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и активная жизнь»,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чнут принимать пациентов сразу пять современных поликлиник: в Холмске, Углегорске и тр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две детские и одна универсальна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емонстрирует успехи в создании бесшов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траектории для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с ОВЗ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числе шести пилот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успешно реализует федеральный проект «Формирование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маршрута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и ОВЗ для получения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дальнейше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Ключевая цель проекта — обеспечение непрерывного пути от ранней помощи через все ступени образования до успешно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На расширенном заседании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й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подведены промежуточные итоги, которые

подтверждают эффективность выбранного курса. Проект объединил усил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8 пилот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лледжей и социальных партнеров.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уже очевидны и измеримы. Охват услугой ранней помощи в регионе вырос в 2,1 раза. Сегодня для семей работают пять служб ранней помощи, поддержавших 112 детей, и 117 консультативных пунктов, оказавших услуги 2768 семьям. Существенно выросла доля выпускников, продолжающих образование: 42% одиннадцатиклассников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поступили в вузы (против 34% ранее), а 66% девятиклассников с ОВЗ выбрали обучение в колледжах и техникумах (рост с 54%). Важным достижением стало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специалистов, обеспечивающих психолого-педагогическ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с 917 до 1002 человек. Система профобразования также развивается: количество адаптированных программ СПО увеличилось на 3,1%, а для лиц с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ми нарушениями разработано семь новых програм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Популярность движения «Абилимпикс» растет — число участнико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увеличилось на 5%.

Качественные изменения не менее значим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укрепила лидерские позиции, войдя в топ-10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 медальном зачете «Абилимпикс» и заняв первое мест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Базова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гиона занимает третье место в общероссийском рейтинге. Благодаря внедрению бережливых технологий срок подготовки документов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психолого-медико-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и удалось сократить с 90 до 14 дней. Для помощи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самоопределении разработан уникальный «Атлас доступных профессий»,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й на экономику Сахалина. Повышается и компетентность педагогов: для них созданы и реализуются два новых курса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 «Эксперты движения "Абилимпикс"» и «Проводники родительей»,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эмпатич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семей.

— За сухими цифрами статистики — реальные истории успеха наших детей и спокойствие родителей,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 Мы создаем не отд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а целостную среду возможностей: от дистанционной службы ранней помощи «Росточек» в детском саду до карьерного центра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и банка работодателей в техникуме. Сложившаяся эффективная система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доказала, что можем выстроить для каждого ребёнка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маршрут к востребованной профессии и уверенному будущему.

Работа в рамках пилотного 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ается. Отработанная модель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о траекториям социализации, обучения,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будет масштабирована на всю региональную систему поддержки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с особым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и потребностями.

Райо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и наградой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за сохран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ных традиций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В столице подвели итоги федерального этапа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Лучшая муниципальная практика» в номинации «Укреплен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ира и согласия, реализация и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сфере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на муниципальном уровне». Участие в нем приняли 373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 из 73 реги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числе победителей, получивших дипломы от руководителя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Игоря Барина, — Поронайский муниципальный округ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беду в конкурсе одержали десять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5 место в категори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круга» занял Поронайский муниципальный округ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За бережное отношение к традициям и обрядам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и существенный вклад в сохранение уильтинского языка».

Реализуемая в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е практик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сохран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ных традиций и обрядо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прежде всего — нивхов, ороков (уильта), нанайцев. Централь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ней — муниципальный праздник-обряд «Кормление духа — хозяина моря» — является не только важным дл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Поронай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целом, но и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для туристов, число которых на острове ежегодно растет.

Поронайский муниципальный округ активно ведет работу по сохранению языко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Так, 45 детей из числа уильта в 2024 году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изучать родной язык по новым учебникам. Один из авторов учебного пособия — Минато Сироко — носитель языка, почетный гражданин Поронайска.

В 2025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благодаря центру «Мой бизнес» открылось 60 компаний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23,5 тысячи предприятий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Более 90 тыс. работников трудоустроено в сфер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 это примерно 36%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занятого населения в экономике области. В условиях всесторонней поддерж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бизнес-климат в несколько раз превысил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ое значение.

Помощь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в регио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 национ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Эффективная и конкурентная экономика»,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Ф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С 2019 года в регионе работает центр «Мой бизнес», где поддерживают начинающих и действующих владельцев своего дела. Для них доступны более 400 бесплатных услуг.

Самыми популяр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поддержки остают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и финансовая поддержка в виде микрозаймов. Так, в 2025 году более 2 тысяч человек обратились за помощью, тысячи из ни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обучающ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а 60 компаний открылось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Мой Бизнес».

Льготным финансированием на открытие нового бизнеса воспользовался Антон Курмаев. Он занимаетс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более семи лет и руководит тремя различ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ресторанного дел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ахалинец получил микрозайм и открыл караоке-кафе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 Идея открыть новое заведение возникла у нас спонтанно. В ходе изучения рынка мы выяснили, что в нашем городе существует высокий спрос на караоке. Это подтолкнуло владельцев бизнеса к поиску подходящего помещения, и мы решили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именно на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Обратились в центр «Мой бизнес» и оформили кредит в размере 1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од ставку 5 % годовых для нашей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со сторо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 также выгодным условиям для бизнеса у нас есть отлич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 поделился Антон.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использовал на основной ремонт помещения, закуп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мебель, а также н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и оформление интерьер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центре «Мой бизнес» действует около десяти программ по льготному финансированию. С полной линейкой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по ссылке.

— Максимальная сумма займа составляет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роцентная ставка варьируется от 5% до 15,5 %. Срок кредитования — 3 года. Данная программа доступна для субъектов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для начинающих бизнесменов. Займы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как для пополнения оборотных средств, так и для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целей, например, приобретения оборудования. Оформление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достаточно простую процедуру, для получения льготного микрозайма необходимо подготовить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перечень которых размещен на сайте fsrp-sakhalin.ru. Специалисты нашего центра оказывает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ддержку на всех этапах оформления,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ный специалист отдела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центра «Мой бизнес» Любовь Фетисова.

Владелица своего дела Екатерина Мальцева сотрудничает с Центром с 2022 года, участвуя в различ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ах, а также получая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и поддержку в продвижении своего бизнеса. В этом году, благодаря своей положительной кредитной истории, бизнес-леди смогла получить беззалоговый займ и открыть монобрендовый магазин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пособствуя развитию креативной индустрии региона.

— Путь к моей мечте — открыть магазин в воздушной гавани занял три года. Все складывалось непросто, потребовалось много усилий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продукта. Н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и поддержка со сторо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еня вдохновили и поддержали. Сейчас я имею возможность находиться в этом прекрас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каждый день и вижу гостей, их горящие глаза, и они говорят: «Это не просто точка продаж, это место бренда», — отметил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ница.

Поддержку для развития бизнеса оказывают и ветеранам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Для приоритетных проектов, связанных с развитие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кредит с процентной ставкой 5,0% годовых. Для иных вид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авка составляет 9,0% годовых. Максимальная сумма займа достигает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срок возврата кредита — до 3 лет.

Добавим, что число самозанятых в регионе составляет 28 тысяч человек. Около 31%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занимается розничной и оптовой торговлей,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 13,4%, а примерно 9,5% приходится на обрабатывающие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дробнее — на mybusiness65.ru или по номеру 8 800 222 0123.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кскурсия на Шумшу, газ в СНТ и поддержка СВО: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ветил на вопросы сахалинских ветеранов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форум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етеранов войны, труд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Глава области наградил активистов ветера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и ответил на волнующие их вопросы.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подвели итоги работы ветера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 2025 году. Так, шествие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объединило 1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Во время акции «Звезда Победы» ветераны проехали 450 км и посетили памятные места в шести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Активисты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провели более 100 уроков мужества. В ни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5 тысячи ребят из 29 школ. Прошел региональный конкурс «Наследники победителей» — школьники в своих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работах рассказывали о героях войны. Ветераны работают не только с молодежью, но также проводят встречи в трудовых коллективах.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сохранению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Так, участники ветера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этом году восстановили десять памятников на могилах фронтовиков.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благодарил ветеранов за совместную работ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стране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й работы и поддержке армии. В знак этого главе региона вручили переходящий вымпел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наградное оружие — именной кортик — за личный вклад в укрепление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страны.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ла самую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и стала номером один. Это признание заслуг всей команды, в том числе вашей, дорогие ветераны. Вы — наши надежные партнеры в патриотическом воспитании молодежи и укреплении боевого духа наших воинов и поддержке их семей,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з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едовую отправляют автомобили повышенной проходимости, квадроциклы, оптику, радиостанции, беспилотники. В ходе общения с губернатором члены «Боевого братства»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занимаются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автомобилей и попросили содействия с передачей техники в зону СВ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держал инициативу. Он отметил, что грузовый самолет регулярно доставляет грузы на передовую.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опричастность» работают более 50 волонтерских групп помогают собирать гуманитарные грузы. Благодаря всеобщей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ьеров в зону СВО передано более 700 тонн посылок. За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 письмом губернатора наградили председателя Невельского Совета ветеранов войны и труда Валентину Суевскую.

— Мы плетем маскировочные сети. Делаем специальный полевой душ. Привлекаем школьников. Недавно нам помогали ребята из продленной группы. Какая у нас прекрасная вовлеченная молодежь! Также важная часть нашей работы — забота об одиноких пенсионерах. Навещаем их и дарим тепло общения, — поделилась Валентина Анатольевна.

Год 80-летия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и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ознаменовался важными событиями.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завершили работу над первым этапом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Шумшу. На острове провели международную поисковую экспедицию и масштабную реконструкцию высадки советского десанта, с почестями захоронили останки семерых красноармейцев.

Во время общения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ветераны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они тоже мечтают побывать на Шумшу.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собрать первую группу из 18 человек — столько пассажиров обычно помещается в вертолет.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атриоты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могут прикоснуться к истории.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губернатор также выступил с докладом, где подвел итоги работы по разным сферам. На трасс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уложили 150 км асфальта. Начали масштабные работы на западном побережье. При помощи ямочного ремонта исправили 2 тысячи дорожных дефектов. Свыше 22 человек расселили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7,5 тысячи подъездов, капитальным и текущим ремонтом охватили более 5,5 тысячи дворов.

Уровень газифик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рос до 65 процентов. Доступ к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му топливу получили 59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и около 35 тысяч абонентов. Активисты ветера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по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будут ли газифицировать СНТ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Губернатор дал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тве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одключают частный сектор, а СНТ планируют в 2026 году.

Ветераны отметили также, что в этом году снизилась острота вопроса с обеспечением льготными лекарствами и нехваткой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Развивается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ая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чтобы сахалинским пациентам не приходилось лечиться на материке.

— Это очень важный момент — когда из уст главы

региона мы получаем всю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дел, перспективах развития по всем отраслям. Сегодня четко слышали: инициативы в интересах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будут безусловно реализованы.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жилфонда, приведение в порядок дорог, доступная медицина и соцподдержка — все это волнует нас, ветеранов. Для меня как для автомобилиста важно было услышать, что к 2030 году планируют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дорогу по западному побережью Сахалина. Это создаст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не только для отдыха островитян, но и для развития бизнеса, — считает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етеранов войны, труд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Андрей Фугенфиров.

На встрече активисты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поблагодарили главу области з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обрести свежемороженную рыбу по сниженным ценам. В этом году реализовали свыше 2 тысяч тонн даров моря, в 2024-м — 1,5 тысячи тонн.

— Рыбаки напрямую отдают уловы, нет никаких посредников, холодильников, оптовиков. Есть социально ответственный бизнес и мэр, перед которым стоит задача накормить людей рыбой,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Главным девизом в работе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остается: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На островах помогают семьям, оказавшим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поддерживают женщин, желающих испытать счастье материнства. Пенсионеры бесплатно занимаются спортом и посещают концерты. Ветераны и дети войны имеют право на бесплатное зубопротезирование, компенсацию части расходов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путевки в санатории, бесплатный проезд в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выплаты на коммунальные услуги, а также пользуются другими льготами.

Сахалинские мастера покорили чемпионат «Профессионал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триумфально завершила участие в финале чемпионата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мастерству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ойдя в топ-10 лучш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Студенты и школьники област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одготовки и мастерства, завоевав золотые медали в компетенциях «Транспорт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воздуш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и «Летающая робототехника».

— Я безмерно горжусь каждым нашим участником, который прошел этот непростой путь к финалу Чемпионата «Профессионалы». Эта победа – яркий пример того, как увлеченность своим делом, упорный труд могут привести к выдающимся результатам,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не просто очередная победа, а яркое свидетельство того,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растут настоящ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готовые решать самые сложные задачи. Огромная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ем педагогам и наставникам, которые вкладывают душу в наших студентов и школьников, помогают им раскрыть свой потенциал.

Среди триумфаторов – Дарья Лучко, студент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колледжа при СахГУ. Она завоевала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в компетенции «Транспорт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воздуш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 Я всегда была увлечена авиацией. Меня завораживает эта точность,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то, как слаженно работает огромный механизм,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тысяч людей, – поделилась Дарья. – Это не просто работа, это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жизни людей, за безопасность полетов. Я хочу быть частью этой системы, вносить свой вклад в ее надежность. Эта победа – огромное вдохновение двигаться дальше, развиваться и становиться еще лучше.

Еще одним ярким достижением стала победа Петра Позднякова из школы № 1 Анивы. Вместе со своей командой он привез домой золото в компетенции «Летающая робототехника». Юные инженеры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выдающиеся навыки и креативность в создании и управлении роботами.

Чемпионат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мастерству «Профессионалы» – это всероссийское соревнование, объединяющее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экспертов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едущих компаний. Он проходит по наиболее массовым и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экономикой компетенциям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рофессионалитет» нац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в чемпионате уже 11 лет.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стровная сборная завоевала золото в компетенции «Токарные работы на станках с числовым программ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новых общежитий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состоится 25 января

Поддержка островной молодежи стала одной из центральных тем прямой лини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бласт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деляе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разви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в регионе. Все это позволяет выпускникам получать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по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строить карьеру, не выезжая за пределы области, и, что немаловажно, вести актив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Жительница села Молодежного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рассказала губернатору, что ее сын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оступает в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Она поинтересовалась, сможет ли ее ребенок заселить-

ся в новый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 По телевизору мы видели прекрасное здание нового общежития студенческого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Скажите, есть ли возможность у моего ребенка проживать в этом общежитии? — спросила сахалинка.

— Да. В новом общежитии есть все, что нужно молодым людям — комфортные комнаты, оборудованный спортивный зал, кафе, постирочная и другие сервисы. 25 января, на Татьянин день, состоится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студгородка, а пока ребята уже начали постепенно заселяться и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свой быт. Ждем вашего ребенк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на 1,5 тысячи мест на проспекте Победы состоит из трех восьмизэтажных корпусов. В жилых блоках — по две комнаты. В каждой могут проживать два человека. Внутри есть собственный санузел, душевая и кухня —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комфор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и учебы.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СахалинТех завершится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дновременно здесь смогут учиться 2400 студентов. Современный вуз будет готовить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кадры для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отраслей островной экономики.

В начале октября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стал опорным вузом Газпрома. Университет будет готовить кадры, востребованные для развития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в регионе. Для поддержки талантливой молодежи работает центр «СахалинТех Алаид» и «Школа 21». Открыта передовая инженерная школа (ПИШ), а инженерное дело и работу с беспилотными аппаратами дети начинают еще со школьной скамь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молодежь могла вести актив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и центр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Волна», центр единоборств, а также начал работу новый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ий манеж. Пространства позволяют круглогодично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а время работы комплексов организовано так, чтобы тренироваться могли как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спортсмены, так и любители.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сть центров позволяет проводить здесь общественные и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К новогодним праздникам на площадке перед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им манежем планируют залить каток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а летом здесь же установят детские игровые площадки и спортивные снаряды.

Еще один центр притяжения как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так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Здесь находится база детской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и сноуборду. На склонах проходят соревнова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ей. Мастер спорта по сноуборду Юрий Чемодуров обратился к губернатору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откры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мплекса сноуборд-парк.

— Это позволит не только тренировать спортсменов, но и разнообразит катание всем любителям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 отметил сахалинец.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что в ближайшие 3-4 год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получит большое развитие. Уже сегодня комплекс признан лучши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Сегодня сразу на нескольких площадках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продолж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вух современных ресторанных комплексов и двух первых пятизвездочных гостиниц в регионе. Протяженность трасс увеличится с 40 до 100 км. Появятся и новые трассы для сноубордистов, а сезон катания будет более продолжительным за счет раннего оснежения склонов. Наша цель — к 2030 году стать лучшими в стране и, конечно, же составить конкуренцию курортам в странах АТР, — 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Современные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комплексы открываются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о мног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есть и бассейны для развития плавательного спорта. В ходе открытого диалога жители Курильска обратились с просьбой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чашу бассей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емонт произведут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эти цели из бюджета выделены 8,5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 Ногликском районе отремонтируют стадион «Лесной». Такую задачу в ходе прямой лини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ставил перед министром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ом Подшиваловым.

Постепенно на островах формируются все условия, чтобы молодежь связывала свое будущее с родным регионом. Сегодня ребята ведут активную социальную жизнь, участвуют в волонтерских движениях.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льзуются студотряды, многие являются участниками «Движения Первых», «Юнармии», «Молодой гвардии».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и культура на островах. Сахалин стал центром развития движения КВН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За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созданы эстрадно-симфонический, джазовый и детский оркестры, появился музыкальный театр, открыт цирк. Стартовало обучение первого потока студентов в Сахалинском филиале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Бориса Шуккина, а в планах на ближайшие годы — открытие консерватории и музыкального театра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асть затрат на услуги няни компенсируют сахалинским семьям

На прямую ли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ступил вопрос от будущей мамы. Жительница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поблагодарила за программу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и поинтересовалась, сможет ли она получить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на оплату услуг нян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дал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твет.

Вслед за 2025 годом 2026-й объявлен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одом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В помощь молодым мамам на островах ввели новую меру поддержки. Семьи с детьми до трех лет могут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часть стоимости услуг няни. Максимальная сумма – 10 тысяч рублей ежемесячно.

Группы присмотра на базе детских садов – еще одно важное новшество. Мама сможет оставить малыша на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а в это время сделать домашние дела, сходить к врачу или магазин. Для семейного бюджета такая форма будет экономичнее, чем индивидуальная няня.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запустя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Если все пройдет успешно, его расширят и на районы области.

– Няни получают знания в нашем университете. Уже обучили 300 человек, планируем 700. Это одно из направлений программы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Она включает целый комплекс мер – от лечения бесплодия до новых корпоративных ценностей. Была идея изменить культуру отношения к материнству и детству. Реализуем программу с марта этого года и сейчас радуемся первым результатам. За 11 месяцев этого года на 250 женщин больше встали на учет по беременности, чем за весь прошлый, – рассказал в прямом эфир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се делает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мочь семьям исполнить мечту о малыше и воспитать ребенка. Более 2 тысяч женщин и мужчин в этом году прошли углублен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репродуктивного здоровья. Парам стала более доступной процедура ЭКО. Ввели новую меру поддержки на оплату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связанных с лечением бесплод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ЭКО проводят в двух учреждениях: «Цветке жизни», а также открывшейся в но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клинике Фомина – филиале одной из лучших клиник России,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просами женского здоровья. Сахалинки проходят процедуру ЭКО бесплатно в рамках ОМС.

Женщинам в ожидании малыша помогают «проводники

счастья». Персональные администраторы сопровождают будущих мам по всем вопросам с момента постановки на учет по беременности до родов.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социальному сопровождению женщин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Благодаря комплексной помощи 30 сахалинок в этом году сохранили беременность.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помогли им справиться с жизненными трудностями, ставящих женщин перед сложным выбором.

Чтобы сахалинки и курильчанки могли успешно совмещать материнство и карьеру,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региона внедрили новые корпоративные ценности. Для сотрудниц, уходящих в декрет, формируют карьерные планы. Работодатели идут навстречу, если молодая мама хочет быстрее выйти на работу,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ся дистанционный формат, повышение квалификации.

Сахалинская программа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является примером практического решения задач по улучшению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поставленных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Семья».

На прямую ли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поступил звонок от Алексея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н предложил открыть в перинатальном центре окно МФЦ, чтобы молодые мамы могли на месте оформить все документы по рождению ребенк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ветил, что эту инициативу проработают совместно с МФЦ и минздравом.

В эфире губернатор дал ответы еще на ряд вопросов, затрагивающих сферу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Мама ребенка-инвалида попросила установить во дворе колясочную.

– Мне очень тяжело со второго этажа спускать инвалидную коляску и ребенка, – поделилась анивчанка.

Губернатор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главе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Светлане Швеи. Мэр заверила, что в 2026 году во дворе предусмотрят модульную колясочную.

Другое обращение на прямую линию коснулось вопроса индексации соцвыплат.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ветил, что принципиальн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будут проиндексированы. Несмотря н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давление со стороны Запада, ключевой задачей д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ается поддержка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важаемая Ким Сей Око, глубоко скорбим вместе с Вами в связи с утратой Вашего сына, Кима Анатолия Васильевича. Мы знаем, насколько тяжела эта утрата, и хотим поддержать Вас в этот сложный и печальный момент Вашей жизни. Память о Вашем сыне сохранится в наших сердцах навсегда. Его жизнь была наполнена смыслом и добром, и он оставил неизгладимый след в душах всех, кто знал его.



РООСК

Коллектив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Ари-ранг" выражает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нашей Окад Софье (Ким Сей Око) и ее семье в связи с невосполнимой утратой сына, Ким Анатолия Васильевича - участника СВО. Глубоко сочувствуем вашей боли, скорбим вместе с вами. Светлая память останется в наших сердц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ыражает глубокие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бухгалтеру редакции Окад Се Бок в связи с трагической гибелью племянника Ким Анатолия. Приносим наши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маме и семье погибшего. Боль от потери нестерпима, мужества вам и стойкости. Скорбим вместе с вами. 새고려신문사 장세복 회계원의 조카 김 아나 톨리가 향년 48세로, 12월 9일 특수군사작전 수행 중 전사하였음을 부고합니다. 비통에 잠긴 유가족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полугодие — 885 руб. 9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